

치 사

경인년을 마무리 짓는 초겨울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한국전통불교 미술의 맥을 잇고 현대불교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불교미술협회의 스무 번째 회원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미술은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민족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와 당당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의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학한 인재들로 신심과 열정을 바쳐 작품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미래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문화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승과 재창조를 통해 불교문화창달에 기여해 온 불교미술협회의 전시회는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잇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즐거운 行’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의 모든 출품작들은 단순한 예술 행위를 넘어,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노력과 내적 수행이 빚어 낸 인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며, 항상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